우리 지역 우수한 문화 유물 전시회

전북전통문화예술품협회 · 한국고미술협회 전북지회, 전주공예품전시관서 11~16일 개최

(사)전북특별자치도 전통문화예술품협회(회장 박춘열)는 한국고미술협회 전북지회(회장 이정우)와 함께 11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전주한옥마을에 안에 있는 전주공예품전시관 1-2관에서 '제7회 도민과 함께하는 우리 지역의 우수한 문화 유물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유물 전시회에는 60여 평의 전시 공간에서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던 오래된 다양한 문화 유물이 다수 전시되어 관람객의 흥미와 관심을 끈다.

박춘열 회장은 "전통문화 예술품의 보존과 유물에 대한 정보교류의 장을 통해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던 소중한 문화 유물을 잘 보존하고 공유하고자 전주 한옥마을에서 전시회를 열게 되었다"며, "많은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찾아 우리 선조들의 소중한 문화 유물을 감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제7회 도민과 함께하는 우리 지역의 우수한 문화 유물 전시회 포스터

이정우 한국고미술협회의 전북지회장도 "지난해 11월 한인비즈니스 대회 기간중 전시회를 개최한 후 이번에는 한옥마을에서 다수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시회를 열게 되었다"며 "잊혀져 가는 우리 선조들의 소중한 문화유물을 보고 느끼는 소중한 전시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정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위원장은 "'오래된 것이 아름답다'는 격언에서 보듯이 오래된 것은 겉으로 보이는 외양은 낡고 닳아빠진 것처럼 보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와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우리의 고미술품"이라며 "귀한 전시회를 준비한 전북전통문화예술품협회와 한국 고미술품협회 전북지회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많은 도민들이 전시회를 찾아 우리의 소중한 문화예술품을 감상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서포터즈 모집

4월 8일까지 가입… 다양한 혜택 제공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 · 정준호)는 3월 12일부터 4월 8일까지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초 가입비 5만 원 혹은 그 이상 추가 납부하면 누구나 서포터즈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예매 실적을 기준으로 3년 연속 영화제에 불참할 경우 일반회원으로 전환된다.

서포터즈 회원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모든 회원은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및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상영작 예매 시 편수 제한 없이 티켓 1매당 1,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굿즈샵에서 회원카드 제시 시 굿즈 구매 금액의 10%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예매 실적 기준, VIP 회원으로 선정되면 추가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신규 서포터즈 회원에게는 가입 시 모바일 및 실물 회원카드와 서포터즈 패키지가 증정된다. 기존 회원도 5만 원 이상을 추가로 납부하면 신규 회원과 동일한 증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포터즈 가입은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홈페이지(http://www.jeonjufest.kr)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관객서비스팀 티켓 담당(063-280-7907) 및 메일(ticket@jeonjufest.kr)로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시나브로 치유길 오프라인 챌린지'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익산시, 도내 유일 '박물관 · 미술관 주간 사업' 공모 선정

5월 한 달간 3종 체험 특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익산시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유일하게 '2025 박물관 · 미술간 주간 사업' 교육부문 공모에 선정됐다.

익산시 백제왕궁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뮤지엄x즐기다'를 통해 오는 5월 한 달 동안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박물관 · 미술관 주간'은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박물관 · 미술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매년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공모해 지원한다. 박물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국비 1,500만 원을 확보했다.

올해 공모 주제는 '급변하는 공동체와 박물관의 미래'다. 백제왕궁박물관은 '백제왕궁 : 공동체의 연결, 미래를 비추는 유산'이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기획해 최종 선정됐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5월 한 달간 백제왕궁박물관 및 왕궁리유적 일원에서 진행된다.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물관은 백제왕궁(왕궁리유적)에서 출토된 유물과 백제 역사를 활용한 3종의 체험 프로그램을 총 6회 운영하며, 폭넓은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프로그램 일정과 참여 방법은 백제왕궁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경희 백제왕궁박물관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단위 방문객이 백제왕궁의 역사와 문화를 보다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박물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시나브로 치유길 오프라인 챌린지 성료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시나브로 치유길 오프라인 챌린지'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이번 오프라인 챌린지는 완주 구이저수지 둘레길과 진안 운일암반일암 숲길에서 가족 단위 관광객과 걷기 동호회원 60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전북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즐기며 성큼 다가온 봄기운을 만끽했다.

한 참가자는 "전북의 관광 명소를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치유형 걷기 행사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소비 촉진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완주 생강젤리, 진안 빠망젤리 등 지역 특산물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진안군 챌린지에서는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와 연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완주 · 진안의 주요 음식점에 참가자들이 몰렸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관광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 지역과의 상생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은성 기자

정읍근대역사관, '역사공부 · 공예체험' 프로그램 첫 회 마쳐

정읍근대역사관이 시민들에게 근대역사를 알리고자 기획한 '역사공부 · 공예체험' 프로그램이 성공적인 첫 회를 마쳤다.

시는 최근, '정읍근대역사관과 함께하는 역사공부 · 공예체험' 프로그램의 첫 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읍근대역사관 방문율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근대역사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 처음 시행된 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총 39회 진행될 예정이며, 2월 17일부터 신청을 받아 높은 관심 속에서 조기에 마감됐다. 프로그램은 전사머그컵 만들기, 미니도마 색칠하기 등 10가지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돼 어린이들에게 재미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첫 회 프로그램은 보영유치원 어린이 19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가한 교사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화호리 역사 해설 덕분에 이해가 쉬웠고 전사머그컵 만들기 체험을 통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정읍근대역사관과 함께하는 역사공부 · 공예체험' 프로그램은 11월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에 운영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진안역사박물관, 진안 역사 · 문화 담긴 유물 구입 추진

진안역사박물관(진안군 직영)에서 진안의 역사 · 문화와 관련된 자료 및 옛 사진자료 등을 수집하기 위한 유물 구입을 추진한다.

이번 구입 대상 유물은 진안지역과 관련된 고지도나 고문헌, 고문서를 비롯하여 마이산, 인삼 · 홍삼과 관련된 유물, 민속품 등으로 진안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유물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더해 진안의 문화유산이나 경관 · 풍속 등을 1990년 이전에 촬영한 사진 자료도 구입 대상 유물에 해당된다.

유물 유상 양여 신청 기간은 4월 7일까지로, 진안군과 진안역사박물관 누리집에서 자세한 공고내용을 확인한 후 제출서류를 작성해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입 대상 유물과 가격은 전문가 감정평가 등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진안역사박물관 관계자는 "유물 구입을 통해 진안의 문화유산을 보존 · 전승하고, 이를 활용한 전시 · 연구 · 교육기능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 · 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정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